

지구촌 68 년 졸업 동기 모임

국내외 동기모임을 zoom 으로 했다. 졸업한지 오는 2 월이면 57 년이 되어가고 모두들 80 세이상의 나이가 되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대면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졌다. 이번 첫 시도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문 14 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날짜를 혼동한 이건일 형과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시간을 혼동한 안궁환 교수는 회의가 다 끝난 후에 들어와서 아쉬웠다. 모두들 보고싶어 했는데.

처음 zoom 미팅을 준비할 때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메일이 있는 30 명의 한국동문과 39 명의 미주 거주 동문에게 zoom links 를 2 주전에 보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루전인 12 월 5 일 또 보냈다. 약 10 명의 이메일 주소가 수신이 거절되어 되돌아오고 그 중 4 명은 주소를 고쳐서 다시 보냈다.

결국 12 월 6 일 동부시간 저녁 8 시에 기다리던 zoom 회의가 시작됐다. 항상 책임감이 강한 우리의 영원한 회장인 서울의 김상우 형이 거의 1 시간 전부터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침 집에 놀러온 막내따님이 있어서 핸드전화를 이용하여 가르쳐주어서 들어왔다. 서울동기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하고 소유하고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아주 오래된 (7-8 년도 더 된) 것이어서 최신식인 전화가 더 편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보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서 마이크 모양과 비디오 모양의 싸인을 열기 위하여 눌러도 즉시 반응이 안되니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 한국에서는 작동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한다.

Champaign, Illinois 에 거주하는 옛날엔 동안이었던 새로운 모습의 김재관 형이 미국에서는 일 착으로 들어왔다. 이분이 누구일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인천에 사는 임윤명 교수는 현지시간 토요일 아침 10 시에 들어와서 똑같은 시간에 탄핵을 걱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볼 예정이라고 하기에 그러지 말고 우리 회의에 들어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고 참여하여서 고마웠다. 한국은 바로 계엄선포와 취소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저녁(서울은 아침)이었다. 아시다시피 임형은 수년전에 한국최초로 어린이 재활병원(250 병상 최신식)을 설립한 공으로 국민훈장을 받은 바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강조웅 형이 멀리서 참여하여서 여러 동문들과의 미담을 나누었다. 특히 88 올림픽 때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구간에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렸던 신용계 교수를 접하던 당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다. 당시 신 형은 그 성화를 위하여 조지타운 의대병원 수술방에서 쓰는 링겔병을 들고 연습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는 현재도 이 버지니아 지역 동기들의 건강을 챙기느라고 지난 십여년간 매주 동기 골프를 계획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미주서울의대 총동창회 학회모임이 있을 때도 그가 골프를 담당했다. 또한 주광국 형은 지난 9년간 미주동창회 Website 를 창설 관할하면서 우리 동기의 카카오톡에도 시계탑을 올리는 노력을 함께 찬사를 받았다.

서울의 동기들은 이석현, 전병두등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는 동문이 많고 이홍규 교수는 새로 개원을 하느라고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다. zoom 모임의 기술적인 면에서 김상우 회장이 한국동문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다음 모임을 위하여 설명할 것으로 안다. 고국에 있는 우리동기들 중에 장순명 동기는 오래전에 이미 장기려 의료봉사상을 받은 것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의 여러 동문들이 각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제와 의학발전에 기여했음은 우리 모두 늘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늦게 들어온 김명원 화백은 얼굴의 피부가 윤택하고 노화현상이 전혀 없게 보여서 모두들 그 비결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NOXEMA>라는 크림인데 얼굴에 바르고 1-2 분후에 씻어냅니다. 그리고 Moisturizing lotion 을 항상 바르세요. 우리병원에서는 Lubriderm Lotion 을 씁니다.” 깜박 잊고 못 들어온 이견일 형의 의견도 비슷한데 그는 “Cetaphil 이라는 moisturizing Cream 크림을 샤워 후에 얼굴, 온몸에 바릅니다.” 이라고 말한다. 이 두 분은 모두 건조한 캘리포니아의 LA 에 사는 사람들임을 독자는 참고 하시기 바란다.

머리가 벗겨졌거나 있어도 흰 머리와 주름살에 산신령처럼 눈섭까지도 하얗게 된 우리이다. 졸업한지 오는 2 월이면 57 년이 된다. 이미 타계한 분들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반갑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나.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정다운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앞으로 자주 이런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60 주년까지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남아 있어서 가끔 이렇게나마 서로 얼굴을 다시 익히고 웃기로 했다. 혹시 어려운 질병이 생겨도 잘 다스리면서 오래 오래 연락하자고 약속하고 작별의 버튼을 눌렀다. 참석한 사람은 미국에서 주광국, 신용계, 서윤석, 김명원, 이규달, 신흥식(?), 김태기, 안세현, 김재관, 노영일, 한국에서는

김상우, 임윤명, 이호성,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조웅, 늦게 접속한 사람은 안금환, 이견일이었다.
참고로 몇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글; 서윤석

